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

제안 설명



2019. 4. 2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희걸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4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양천 제4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소개한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물포도로는 그 이름의 역사만큼이나 상습 교통정체와 낙후된 주변 이미지로도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현재는 국회대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지만, 제물포도로는 양천구와 강서구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어서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없고, 상권형성도 어려워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기능이 무색할 만큼 상습 교통정체와 이로 인한 매연발생, 열악한 보행환경과 고가 구조물 등으로 주변 지역은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문화시설과 공원, 녹지 등 생활기반 시설 또한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 개요를 보면, 지하2층은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하1층은 영등포를 비롯하여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지하화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고, 2023년에는 지상에 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단절되었던 양천구와 강서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국회대로의 상습 정체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한 지역 간 단절문제를 해소하고, 공원 및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도시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안)’을 보면, 강서구 화곡동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바로 길 건너편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고도제한, 건물 형태 소형화 등 2중, 3중으로 규제를 더욱 더 심하게 해 놓았습니다.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은 지역발전은커녕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너편 강서구 화곡동과의 차별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양천구 주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신정동과 신월동은 계속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청원은 결코 특혜를 바라거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차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상습 교통정체와 매연,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으로 개발과 동떨어진 채 낙후된 지역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 오던 주민들이 이제는 바로 길 건너편 주민들과 같은 환경에서 삶을 영유할 수는 없는지요?

본 의원은 지난 4.17.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안)’의 변경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국회대로를 사이에 두고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양천구에서 금년 2월부터 이미 주민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방안 수립이라고 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양천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다’ 고 약속한 사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지구단위 계획의 당초 취지에 맞게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상업시설 및 문화·복지 시설로 지정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고 차별화를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본 청원을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